

여론으로 본 민주당 위기의 진단

2013. 12.6
정한을
EAI 사무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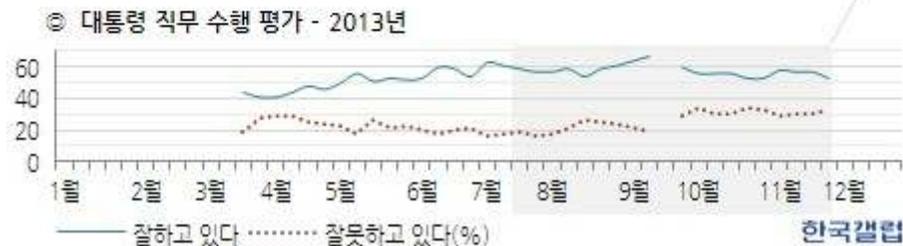
1. 민주당 지지율은 왜 낮은가?

1) 얼마나 낮은가?

❖ 한국갤럽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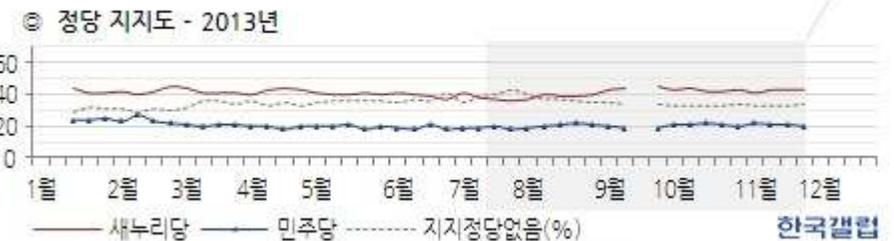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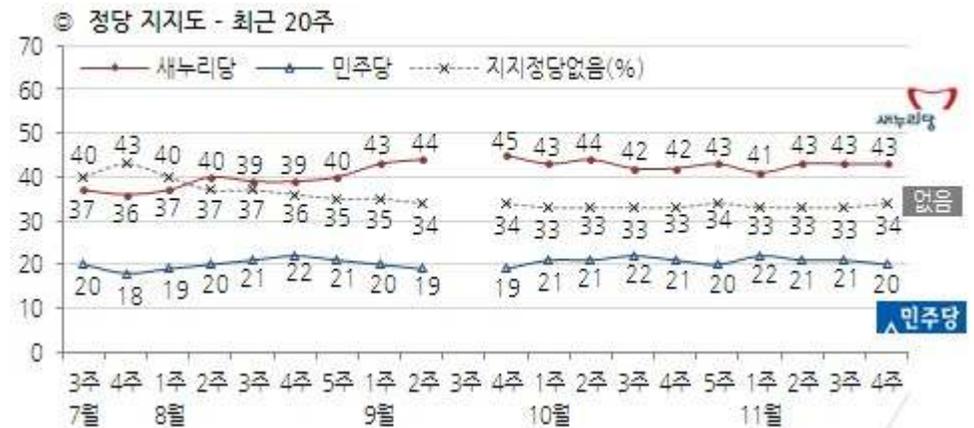
50% 넘는 대통령 지지율,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 40%대, 민주당 20%대 고착

대통령 지지율



*취임 4주차부터 조사. 9월 3주(추석 기간)는 조사하지 않음.

정당지지율



*2013년은 1월 3주부터 조사. 9월 3주(추석 기간)는 조사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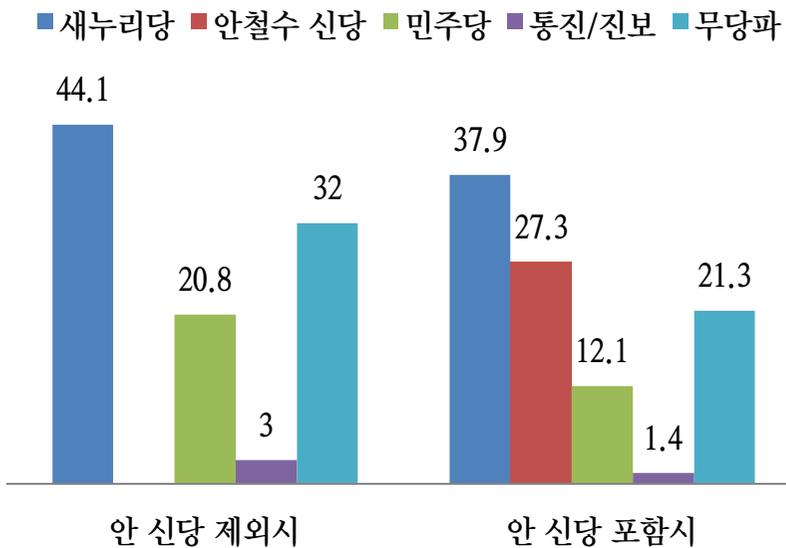
1. 민주당 지지율은 왜 낮은가?

2) 왜 낮은가? 야당 지지층의 이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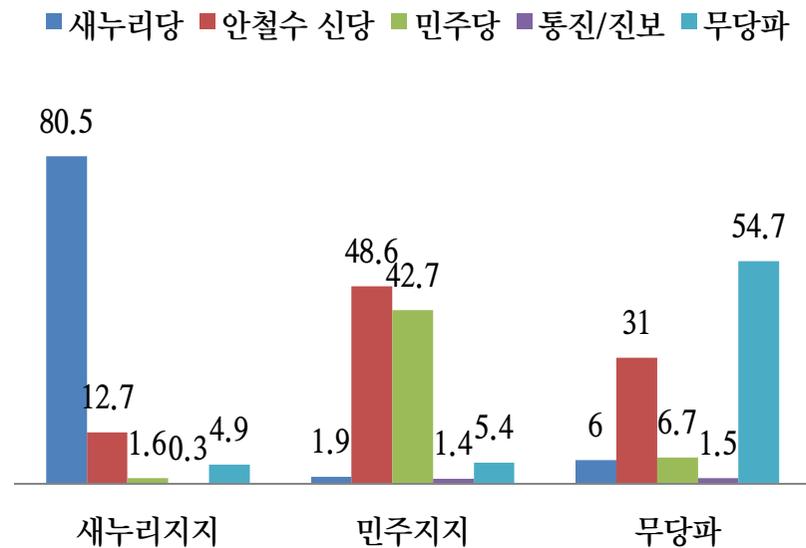
❖ KSOI 11월 정기조사 :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제3당 전략, 새정치재편 아닌 야권재편

- 현 민주당 지지층의 48.6%, 진보층의 51.7% 가 안철수 신당 지지로 이동
- 무당파의 31.0%, 중도층의 29.8%만 안철수 신당 지지 (안풍 위력의 반감)

집합 정당지지 분포(%)



개인 정당지지 변화(%)



자료: KSOI 11월 정기조사(2013.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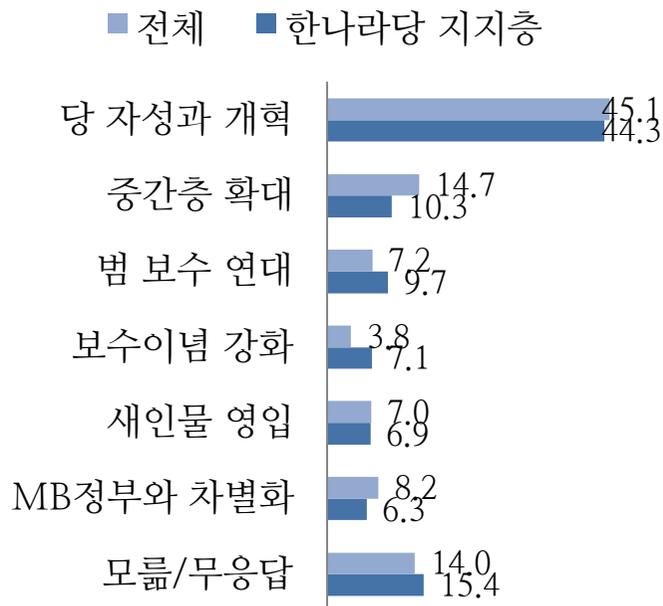
1. 민주당 지지율은 왜 낮은가?

3) 왜 낮은가? 지연된 내부 개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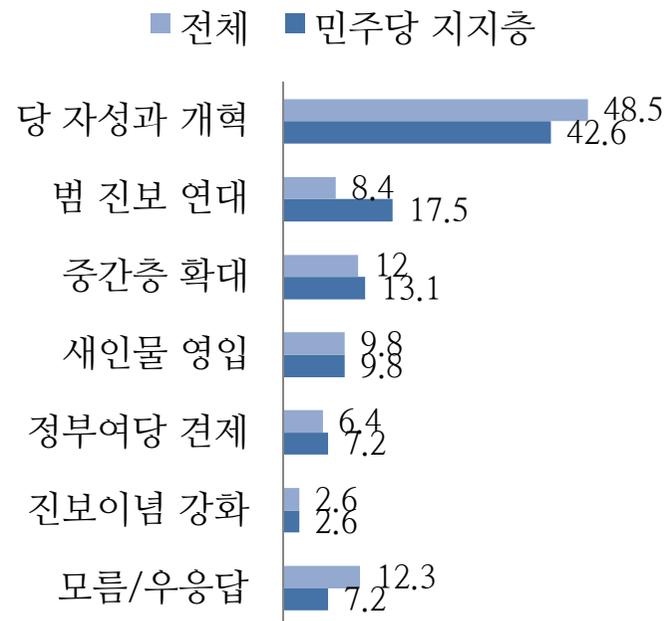
❖ 2006년 이래 지연된 개혁

- 2012 대선 이후 야당의 메시지 “네 탓 공방”
- 리더십/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정당 (리더십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는 당)

새누리당에 바라는 변화



민주당에 바라는 변화



자료: EAI·한국리서치 정기조사(2011.9)

1. 민주당 지지율은 왜 낮은가?

3) 왜 낮은가? 극심한 불신

❖ 불신심화

- 민주당 3대 이미지 : 불안정 / 무능 / 반대를 위한 반대
- 2012 대선 전 EAI 웹조사 결과 이미지 측정 12개 척도 평가에서 대부분 부정적 평가



자료: EAI FGD(2012)



자료: EAI 웹조사(20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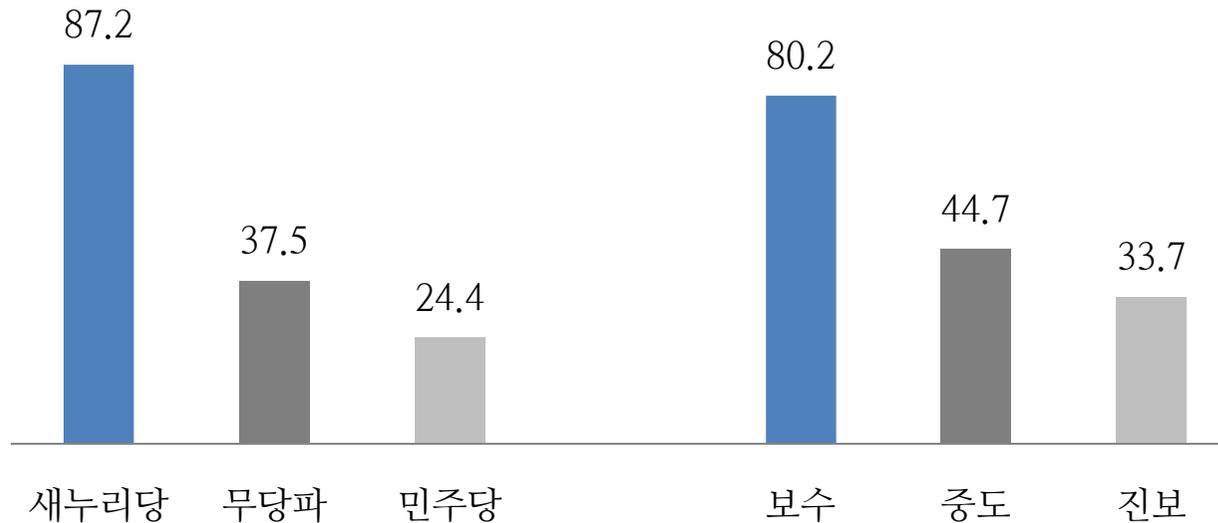
2. 대통령/새누리당 지지율은 왜 높은가?

1) 보수층 결집

❖ 신노선에서 보수층 결집노선

- NLL, 북한 변수
- 신노선(경제민주화/복지강조)에서 기존 보수노선으로 회귀

대통령 지지 기반: 긍정평가(%)



자료: KSOI 11월 정기조사(2013.11)

2. 대통령/새누리당 지지율은 왜 높은가?

2) 정치사이클 효과

❖ 정치사이클 효과 (필자의 가설)

- 집권 초 기대효과 (정치적 관여도 engagement 하락 → 정부여당에 위임)
- 경제적 책임(회고적 평가)에 대한 문책 유예
- 악재 많지만, 정치 위기로 심화되지 않음 : 국정원 사건, 검찰총장 사퇴 및 인사 파동
 - 인지차원의 평가는 야당 주장에 동의

-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
의견 “여야 합의 없이 절차요건 위반” 51.9%
(내일신문 2013.12)

-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특검
“찬성” 60.9%, “반대” 34.4%
(내일신문 2013.12)

- 준예산 편성될 경우 책임소재
“정치력 발휘 못한 정부여당” 41.9%
대 “예산안과 특검 연계한 야당 책임”
46.7% (한국갤럽 2011. 11)

-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책임 사퇴
“동의하지 않는다” 70%
(한국갤럽 2013.11)

2. 대통령/새누리당 지지율은 왜 높은가?

3) 통치방식

❖ 대통령 통치 방식 (자력요인)

- 집권 초 지지 최대 이탈요인
 - 대야관계 보다 집권세력 내분 → 효과적인 통제 (EAI,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)
- 책임분산 전략
 - 대통령은 합의이슈(외치/민생)
 - 국정원, 새누리당이 쟁점이슈(케네디 모델과 루즈벨트 모델의 절충)
- 양면전략 : 중도층 포섭 병행, “전두환/노태우 추징금 환수” , “재벌 비리 엄단” 등에서 성과
- 야권 분열 이슈 활용 : NLL, 통진당 등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 이용
 - 공약 철회 등도 여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

3. 민주당의 대응방향

❖ 위기의식 공유

- 문제 진단에 대한 메시지 조차 엇갈려
- 국민여론 , 특히 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스스로 심각한 위기의식 체감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

❖ 당 재건축 프로그램 : 원죄의 해소

- 안정감 주는 정당 : 일관된 메시지 관리, 당 노선 정비(FTA, 복지노선, 대북노선…), 제도적 불안정성 개선
- 능력 있는 정당 : 리더십 제도화 방안, 당 규율 강화, 신 인재 영입
- 책임 있는 정당 : 내부 개혁노선 우선, 후 여 비판 원칙 (레토릭과 행동의 불일치, 비일관성 심각)

❖ 리더십 재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점

-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이끄는 힘 :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공히 예측 가능하지 않아
 - 현 체제에서 임기시까지의 전략과제 및 로드맵 제시
 - 지방선거 룰, 원칙(특히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 선제적 제시, 다시 한번 단일화는 최악의 선택일 듯)
-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아야 → 선거평가 과정 및 개혁 과정은 민주당인이 주도해야
- 자기 희생 세력 없이 회생 어려워 보여